

2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배드뱅크 흔들리자 간신히 8천선 [다우: 8000.86pt (-1.82%)	뉴욕증시가 30일(현지시간) 약세로 마감. 은행 구제방안으로 거론되던 `배드뱅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불거진데다, 부진한 기업실적이 부담을 줌. 미국의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 수치가 예상보다는 덜 나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어 발표된 제조업경기 지표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 이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금융안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랠리가 쉽지 않고, 오히려 11년 내 최저를 기록한 작년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전망하여 뉴욕증시에는 부담이 됨.
`배드뱅크` 불확실성에 은행주 약세	미국의 CNBC는 은행구제책 방안중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배드뱅크`가 자금조달 문제 등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CNBC는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내주중 금융구제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드뱅크` 방안이 발표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증시에선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주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오바마 정부가 국유화 쪽으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는 우려로 씨티그룹이 9% 가까이 떨어졌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장막판 낙폭을 크게 줄였지만 3% 가까이 하락.
업종대표주 일제히 부진..다우 30종목 중 3개만 상승	뉴욕증시에선 업종 대표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JP모간체이스 보잉 등 3종목에 불과.
4분기 GDP, 예측치 상회 불구 경기불안 자극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하여 1982년 1분기 이후 26년 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도 26년래 최악을 기록.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PMI)의 1월 제조업 지수는 전월의 35.1에서 33.3으로 하락, 198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국제유가, 1월 한달 간 14% 급락 [WTI: \$41.68 (+ \$0.24)	국제유가가 30일(현지시간) 오름세를 보이며 배럴당 41달러로 마감. 미국의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발표된 점이 재료로 작용. 미국은 이날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여 26년 내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감소폭은 시장의 전망치(-5.5%)보다는 적어 원유시장에선 호재로 작용함.

제목	주요 내용
中 작년 1,110억위안 재정적자	중국이 지난해 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을 쏟아부으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재정부가 1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총 지출액은 1조6,600만위안(2,430억달러 상당)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0.8% 늘었지만, 12월 총 재정 수입은 3,250억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다보스의 '엔 파워'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연차총회 연설에서 아시아 경제지원을 위해 1조5,000억 엔 이상의 정부개발원조(ODA)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아소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이 재정지출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전함.
일본 "85엔이 마지노선" ...시장개입 임박 시사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고를 억제한다는 방침. 하지만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여서 실제 행동엔 신중한 자세임.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1달러=85엔 선으로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실제 개입하면 이는 5년 만의 개입임.
현대기아차, 中서 1월 사상최대 판매	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중국현지법인인 북경현대와 동풍얼달기아의 1월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5%, 15%가 늘어난 4만2,790대와 1만7,607대를 기록. 중국 정부가 1월부터 시행한 1.6리터 이하 중소형차에 대한 기준 10%에서 5%로 구매세 인하정책과 우리의 설 격인 '춘절' 특수도 최대 실적을 견인했음.
외국인 두달연속 순매수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8,779억원 순매수한데 이어 이달에도 7,658억원 순매수. 외국인이 두 달 연속 순매수한 것은 지난 2007년 4월과 5월 순매수 이후 처음. 특히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머징마켓에서 순매도를 기록 중이지만, 유독 국내시장에 대해서는 애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덕분에 코스피지수(30일 종가기준)는 연말대비 3.3% 상승.
향후 5년간 34조원 투입, 정보고속도로 구축	방통위와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통신업체,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DMB 업체들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4조1,000억원을 들여 초광역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음. 이 중 32조8,000억원이 민간기업 재원으로 출연. 정부는 1조3,000억원 자금과 세제·제도·융자지원을 하게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